濟大新報

發行編輯兼印刷人 金繼鏞
主幹 金時泰
編輯局長 李秉植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洞五八一
電話438.439
印刷・韓一印刷社
濟州市三徒一洞931
TEL:931

學訓
一, 純粹性의 堅持
二, 自主性의 確立
三, 時代精神의 創造
四, 開拓者로서의 實踐

學生會長團選出

학생회장 김영홍(國·3)君 當選

부회장엔 강태하(법3)君

본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일인 이날은 6월1일 대강당에서 총학생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날 소집하고 회장에 김영홍군(국·3년), 부회장에 강태하군(법과3년)을 각각 선출했다 금년도 후학기, 내년 전학기를 맡을 총학생회장 선거일인 이날은 한강수 현 회장의 개회사, 대의원회의장의 선거규약낭독및 주의사항 소개

大學生과 中國語

中國語에 대한 새로운 認識
대국적인 견지에서 공부해야
中國語는 쉽게 배울 수 있는것

=中國語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中國語講師〉 부윤조

과거 우리조상들이 대국 或은 메국 이라 부르는것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크고 강한 국가의식, 자연발생하는 대국에 의한 시련, 어떠한 敵愾心 등등의 뜻이 내포된 낱말이다.

현재와같은 새계에서는 別個問題인데 동서양을 모르고 살던 할아버님네들 입에서 흘러나온 俗된 말들을 그대로전하여져 내려와 현재 까지 쓰여지고, 相當한 識者間에도 사용되고있다.

중국어는 "대국어"又는"메국말"도 아닌것이며 오직 중국어인 것이다.

休憩室에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중국인들이하는 우리말을 자수 듣게된다. 그 중 한 사람이 아마 중화반점에서 듣고온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내여"당시니 무스거마니 머거헤서 컨서리 나바해 우리 사란 장사 아니데"라고 하며 說大 하는것을 봤다.

이제 그 말뜻은 다들 아는바여서 詳論을 약하고 발음상에 있어 일고하면 중국대륙40여개성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의 발음은 각각 그 차도가 아주 심하여 서로 意思소通에 불편을 느껴 왔다. 북경이 서기一四〇三년에 수도로 정하여진이후 북경발음이 타국에 알려졌

중국어라 하면 일반인들 간에는 흔히 메국말 이라고 불리워진다. 이것은 중국인이 쓰는 언어를 가르켜서 일컫는것이다.

전체 한자는 四종류로 나눠져
기본단어 一三〇〇字
주음 부호는 성모21자、음모16자

봐도 중국어와 비슷한것은"니"과"이"밖에 없다 따라서중국인은"사람"을"사란"이라발음하기 쉽고 또 그렇게 발음하는 자가 많다. 모음에서 봐도"오"에 비슷한 발음은"우"오리"또는"워리"로발음한다.

각각 다른 이개국어에 있어 各기 他國의 발음과 같은 없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타국의 발음을 낸다는것은 용이한 문자 하나 하나가 단어적인 역

Reducing all these to their lowest terms they entail(a) the rejection of the traditio Purpose with its metho d of translation and formal grammar and its divorce fr om Communication, (b) the assertion of the Priority of

양하려는 것과 (b) 문장에 의한 언어 보다는「소리」에 의한 언어를 구사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과 (c) 이로서 언어의 궁극적 사명인 의미전달을중 실히 하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청각·구두 (aural·oral) 의 언어교육법은 일찌기 Chicago 대학의 Harold B. Dunkel교수의 저서 Second-Language Learning과 Co rnell 대학의 Frederick B, Agad 교수와 Dunkel씨의 공저인 An Investigation o f Second-languaga Teachin g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것이다" 그후 Robert A.Hall, Jr교수는 그의 미국언어학자(American linguistic s, 1925-1950)에 있어서 aural-Oral Procedure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술한바 있다. 더우기 Robert Lado교수는 "Survey of Test in English as a Forein Language"에서 aural Comprehension에 관해서 역설한 일이 있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인, 보다 합리적인 언어교육을 위해서는 Lab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다.

(Ⅱ)

본교는 一九六一년 아세아재단에서 1천불의 보조를 받고처음Lab (Listen only type)의 문을 열게되었다. 본교 어학연구소의실태를 잠간살펴보면—.

① 기구—연구고문、소장 상임간사、운영위원회(7명 본교 교수6명 제주도 영어교육회에서 1명) 약간명 의 소원이 있다. 그리고의 국인(평화봉사단원) 2명이 부의 훈련부로나눔、강의실 습실하고 있음. 제2외국어도 어학실습실(2학기부터)을 이용하게 됨.

몇개 대학교의 경우를보면

「서울대학교—一九六六년 八월말 기구를 개편、연구부와 훈련부로나눔、강의실 3시간 ④Audio-Visual Ro 대로 3수간의 특별회화강좌를 갖고 그간 매일 실험실을 이용함

ㄷ부산대학교 ①30명 단위 Class 만듬 ②취임된 tapes 二백여개 ③주당1학년 2시간 영문과 주당 3시간 ④Audio-Visual Ro om 설비 (시청각 교실) ⑤Clark교재 사용.

ㄹ전남대학교 ①Lab·typ Broadcasting type 40개좌석 ②주당 2시간씩 1학년전원에 실시 ③USIS의 Sound-track을 이용하며 그자료를 이용 ④ 현세대 교재 편찬 Principle에 따라 새 교재 편찬해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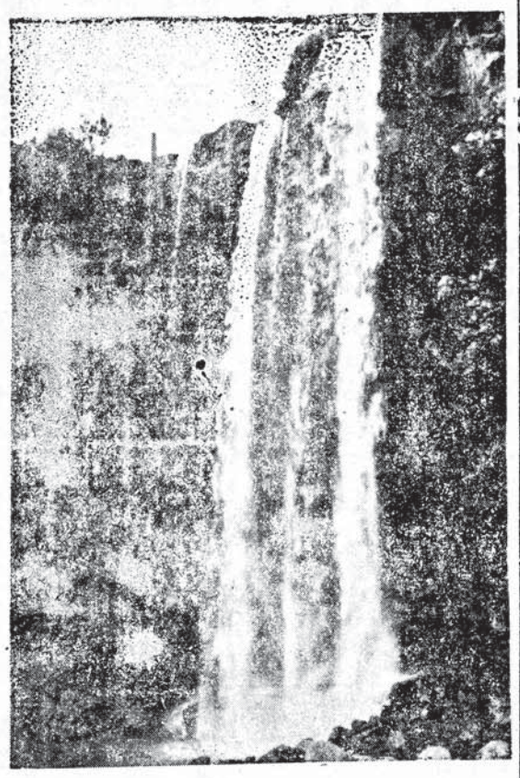
이외에도여러대학들이어학실습실에대해서 많은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있다.

(Ⅲ)

Aural-Oral approach는 영어를 가르치는 가장 효율한 교실에서쓸 수 있는 가장 된다고 확수방법의 하나가 신하는 바이다. 그러나 것 하나만 만족할 수는 없다. Aural-oral method의 결점을 찾아내선 부족한 점을 보충시킬 것은 물론이 거니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다 좋은 교수법을 항상 모색해야할 것이다. 한가지 남아있는과제로 시급히 해야할 연구는 aural-oral approach와 reading ability와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data를내야할일이라고믿는다.

또한 본교에서는 앞으로 좀더 시설을 갖추어 제주도 외국어 교육의 중심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함은물이 론 계학생에게는 Native Voice를 자주들게 하여 사회생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되었으면 한다.

이러도 그러나 장만전에 있으면 한다. 이러도 없는 타대학은 Booth 시설이 시급해 의 시설로는 너무 부족한 감이 든다. 상거의 없다 만 인뒷받침을받았다고 느낀다.



<명승순례①··정방폭포>
(서귀포에있음)
사진 ; 임성주 (원예·2)

어학교육과어학연구소

(어학연구소상임간사) 양우진

(一)

진리를 탐구하는 작업은 인간이 하지만 그 탐구도구는 어학력이다. 이 어학력을 배양하는 교장이 Language Laboratory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제주대학전교생에게 Language Lab.를 공개하여、어학력 배양에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본다. 최근 구미에서 성행하고 있는 언어교수법 가운데에는 어학실습실(Language Laboratory)을 통한 교육이론이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적인 원리의 뒷바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학의 이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활용어」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교수법이 되는것이다.

모든 과학이 나날이 새로운 학설에、의해서 앞의 토 전진하고 있는 것과마찬가지로 언어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

「소리」에 의한 언어 구사가 중요
합리적인 언어 교육

을 하고 있다. 더우기 언어교육의 면에 있어서도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어왔다. 그 가운데서 몇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New Method, (2) Reform Method, (3) Concrete Method, (4) Conversation Method, (5) Oral Method" (6) Aural-Oral Method, (7) Audio-Visual Method, 등이 있다. 이중 대해서 J, B, Adam과 A, J, Shawcross 등저인 the Language laboratory 최근 서 "Oral-Aural" method and the "Audio-Visual"method.

There has, in fact, been no lack of New Methods evolved and Put forwar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esent Century. We have had such significant names as the "New"method, the "Reform" method, the "Natural method the "Rational"method, the "Direct" method the "Neo-or Semi Direct Method, the "Phone.ical" method, the "Concrete"method, the "Converseition" method, the "Oral" meihodo Mode, the "Oral-Aural approach and reading the "Audio-Visual"method, the spoken language Over the written, and (C) the insistance on the need for meaningful meterial and Content.

새로운 언어교육이론이목표로(a) 전통적인 문장해석과 문법적인 설명을 지

(Ⅱ)

배치되어 있다.

②설비—녹음기2대、테프 75개 전축판 70개 八각종회화판—영독、불어및일어 각국명곡판、기타 외국 연설문등 있음) 학생용의자、어학실습용 테불、사무실.

③1학년 일반교양 영어는 주 2시간씩 어학실습실에서 강의를 받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는 기타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회화연습하고 있음.

우선 Booth 시설이 시급해
학생들의 이용이중심돼야

aural-Oral approach와 reading ability 와의 상관관계 data를 내야

4개 Booth 18개 설비되어 있는 교실2개、Booth 24개가 설비되어 있는 교실1개 있음、오전 오후 야간 반이 있고 五、六교시는 native speaker의 회화지도.

ㄴ경북대학교 ①Lab, Type 40개좌석 ②주당 Lab 2시간 ③외인 강사4명회화지도 ④Test form 많이 만듬、⑤동、하기 휴가중고교영어 교사 대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받고 있으며 그 깊이를 셈할 수 있었던 농부 이반 그려져있다. 「아시안 드라마」에는 합리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외해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20C에와서 아시아에도 이 합리적인 과학이 도입되어 번영을 누

후했기 때문이다. 뮈르달의 있는가. 우리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불명예스런 어휘를 만들어냈다. 이 코준 메카니즘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거부할 필요를 느낀다 다섯째는 나라를 사랑하자는 것이다. 애국은 다른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거창해서 애국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맹자도 진리는 가까운데 있다고하지않았는가.

지금까지 말한 이 다섯가지 가치관을 지킬때 우리는 위대해지리라고 믿는다. 인과법칙을 분명히 알고 요행을 바라지 말자. 나는 이 다섯가지를 5애사상이라고 부르겠다. 이 5애사상을 지키는 것은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자격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 사상강연 ◉

숭실대교수 안병욱

다음은 용연제의 일환으로 홍사단 대학생 제주지의 대의 청년들에게 다섯 가지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는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자고 이래로 일을 좋아한 민족이 망한 예는 없다. 일에서 생긴 땀을 사랑할 줄 아는 애한사상을 가지자. 비스마르크는 게르만의 청년에게「일하라、좀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는 세가지를 외친 바 있다. 톨스토이가 지은「이반의 바보」에서도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찾

이 가진 놀라운 수단이며 도구가 아닐수 없다. 과학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눈을적이며 지혜적이며 효율적이게 한다. 과거 삼백년의 세계 역사는 서양이 동양을 정복하려 했던 시대였다. 이것은 동양이 낙후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소외를 발생시킨다. 현대 기술 문명이 가져라 준 메카니즘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거부할 필요를 느낀다 다섯째는 나라를 사랑하자는 것이다. 애국은 다른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거창해서 애국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맹자도 진리는 가까운데 있다고하지않았는가.

지금까지 말한 이 다섯가지 가치관을 지킬때 우리는 위대해지리라고 믿는다. 인과법칙을 분명히 알고 요행을 바라지 말자. 나는 이 다섯가지를 5애사상이라고 부르겠다. 이 5애사상을 지키는 것은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자격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김병택기자>

一九六九학년도
해양훈련실시

목적:수산학도의해양사상고취및 체력향상과 아울러 단체심을 배양함을 목적으로한다

대상:수산학부 一학년 전원및어로학과 二·三·四학년중 해양훈련을 수료치 않은자

기간:一九六九年八月十一—八月十七(七일간)

장소:북군한림읍협제해수욕장

집호징소및 일시:六九年 八月十一日 오전11시 협제제능국민학교

수강신청:소정신청용지에 의거 신청하여 등록금액도 동시 납입

① 등록기간 : 六九年七月五—十日

② 등록비 : 一九五〇원

③ 장소 : 학생관

준비물:세면도구一 식기三 수저一 칫구一 필기도구 수영복및 이름표

수영복 : 전원청색

이름표 : 수영복 오른쪽 상단에 부착

一九六九年六月三十日

수산학부장

「신축년 濟州島敎難」의 事後處理에 있어서 프랑스와의 關係

濟州島 大敎難은 私製事件 黨爭의 過中에 빚어진 政治的 압력의 産物

一、辛丑年 濟州島 敎難의 性格

韓國에서의 첫 천주교 迫害事件인 辛酉敎難以來、李朝史에 얼룩진 敎徒 살해사건이 수없이 있었지만、이들은 모두 官製事件、즉 黨爭의 과정에 말려들어 빚어진 정치적 압력의 産物이었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야기된 一九〇一年 辛丑年의 大敎難의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私製事件이었던데 특이하다。즉 민간인이들고 일어서서 천주교인의 橫暴에 항거하며、民間信仰体制에 대한모욕과 악질관리에 대한 응징에서 비롯되었으니 정부에서 탄압하면 다른 迫害事件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辛丑年敎難의 사후처리를 위하여 다루었던 재판관구성의 문제、외국인재산손해에 대한 보상문제、그리고 살해된 敎人의 유해매장지문제등으로 佛國公使와의 사이에 국제문제가 가로 놓여져 있던 점역시 다른 天主敎迫害事件과는 그 성격이 判異하다。

辛丑年(光武五年·一九〇一年)당시 우리나라는 국제법에 어두웠을 뿐아니라 근대적인 형법마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사건을 처리하는데 무려 三年이란 긴 세월을 소비하였고、우리나라의 財政의 빈곤으로 제주도사건당시피해를 입은 프랑스 神父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주도민이 균등히 부담하여 弁償하였던 사실은 국제간 외교문제의 면에서 參察할 때 심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인의 봉기로 된 私製事件인 濟州島民亂은 一九〇一年 五月 六日(陰二月十八日)에 대정군에서 일어난 私設 商務員(日本人商會)의 천주교인 亂打事件으로부터 발단하여 同月 十六日(陰三月 二八日)에는 濟州市城의 포위사태로 진전되고、同月二八日(陰四月十一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濟州市城의 함락사태로 악화되는 한편 三百餘名의한국군 장병과 二隻의 프랑스군함 一隻의 일본군함의 출동을보게 되어 드디어 국제적사건으로 까지 발전함에 이르러 이 敎難은 同年 六月十一日(陰四月二五日)에는 姜鳳憲、蔡龜錫、吳大鉉 李在守등을 구속함으로써 일단락을 보게 된 사건이 었지만、불과 月餘間을 두고 계속된 이天主敎難으로 인하여 피해된 교인의 수는 약 五百名에 달하고있다。

(天主敎會側의 기록에는六~七百名、美國人 고문관의 보고서에는 三百餘名으로 되어있다。)

당시 적配中에 있던 金允植의 일기에 의하면 亂民側의 사망자수는 불과 二七名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발생 이래 불과 한달여 동안에 걸쳐 이토록 자행되었고 교인살해가 계속되었음에도 속수무책이 었을뿐 아니라 진압하는데 외국군함이 동원되는등 무려 五〇餘日을 소요했다니 참으로 어이 없는 노릇이다。

그 중에서도 맨 먼저 부닥친 문제가 주범을재판할 심판관의 구성문제였다。

甲午更張 이래 우리 정부는新制度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지만七年뒤에 일어난 濟州島 辛丑年敎難當時까지도 아직 近代的인 法規가 없었을 뿐 아니라 近代法思想을 배운 법관도 없었다。그때까지도 사건이 일어나면 판에 따라 「大明律例」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심판관의 상식에 의하여 적당히 처리해 왔다。그러나 제주도사건은 외국인이 介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처리할 수 없다고 佛國公使가 맞서게 되었다。이래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외로 장기간을 끌게되었고、심판관으로 佛國人、美國人등 외국인이 끼게 되었으니 사건처리 당초부터 이 무슨 수치란 말인가。

國內에 근대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佛國人 今雅始(Crimazy)를 법을양성소의 교원으로 초빙하여 西歐式의 근대법을 敎授케 하여 光武五年 七月 十八日 이 양성소 졸업생 十五名을 시험하여 우등생이면 洪鍾翰을 濟州牧檢事 試補로 任命하였으나 同年八月十九日 黃鎭菊과 交替되어한 성재판소로 왔다。

이런 사정으로 양성소 교사인 金雅始(Crimazy·佛國人)와 제주도의 천주교 신부二名과 서울성당의 丁加彌神父(Camile Eugene Douc t)와 미국인 산노를 會同하여 平理院에서 제주사건의 원인을 심리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우리나라 判檢事外에 佛國人三名과 美國人一名 參與下에 비공개리에 국제재판형식으로 수개월을 계속 심리하여、同年十月末에 因 규명에 일단락을 지었다。그 태서 봉稅官 姜鳳憲은 無罪放免케 되는등 敎難主動者 처리에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어느정도합의되고 제주도 천주교인의 생활보호에 대한 대책의 윤곽이 들어나자 同年 年末경엔 佛國人神父 具瑪瑟과 文濟萬(뮈셰)는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사이 불국공사 葛林德은 照會文 第十四號로 火急히처리해 달라고 외부에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 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 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二、재판관의 構成및 處刑 問題와 프랑스 공사와의 관계

光武五年(一九〇一年)七月十八日(陰六月三日)에 敎難의 주범 및 連累者 六名을 서울로 압송함으로서 일단 제주시내에서의緊迫한 사태는 수습된것 같았으나 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國內에 근대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佛國人 今雅始(Crimazy)를 법을양성소의 교원으로 초빙하여 西歐式의 근대법을 敎授케 하여 光武五年 七月 十八日 이 양성소 졸업생 十五名을 시험하여 우등생이면 洪鍾翰을 濟州牧檢事 試補로 任命하였으나 同年八月十九日 黃鎭菊과 交替되어한 성재판소로 왔다。

이런 사정으로 양성소 교사인 金雅始(Crimazy·佛國人)와 제주도의 천주교 신부二名과 서울성당의 丁加彌神父(Camile Eugene Douc t)와 미국인 산노를 會同하여 平理院에서 제주사건의 원인을 심리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우리나라 判檢事外에 佛國人三名과 美國人一名 參與下에 비공개리에 국제재판형식으로 수개월을 계속 심리하여、同年十月末에 因 규명에 일단락을 지었다。그 태서 봉稅官 姜鳳憲은 無罪放免케 되는등 敎難主動者 처리에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어느정도합의되고 제주도 천주교인의 생활보호에 대한 대책의 윤곽이 들어나자 同年 年末경엔 佛國人神父 具瑪瑟과 文濟萬(뮈셰)는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사이 불국공사 葛林德은 照會文 第十四號로 火急히처리해 달라고 외부에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神父 被害賠償金 五、一六〇元

國家間의 외교문제로 긴장

당시는 군대적법사상에 대한 지식이부족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배상금 지불을 불국공사 葛林德은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字로 照會文 第十四號로 요청하여왔다。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에서들고 어두었었을뿐아니라、국고가 고갈하여 지불능력이 없었던 실정이라 날자만 공연히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국공사 葛林德은주기차게 우리나라의 외부와 황제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배상지변을 독촉하였으니、一九〇一年九月二日에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그리고 一九〇二年八月十九日字로 종황제에게 또 一九〇三年 三日 三日엔 외부대신에게 보냈다。그 가운데도 조회문 第四號(一九〇二年一月十五日)에서는 배상금지불은 光武六年二月一日이전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정하여 그래도 지불을 지연시키자 또다시 불국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에게 光武六年二月三日字로 기한이 지나도 청산치 않고 있으니 一九〇一年 七月三十日부터起算하여 매년 七分五리(七、五%)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요지를 전해 왔다。이자를 가산하겠노라는 대에 당황한 대한정부는同年二月五日字로 지연되는 변명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佛國人 神父를 介在하고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후이사건은서울을 무대로 하여 국제화하게 되었는 것이다。

敎授論壇

濟州大學圖書館의 使命

金仁濟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문화의 조달과 복지사회의건설에 있다면 도서관의 지위는 그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架橋役을 担當할 重要한 시설의 하나이다。따라서 도서관은 지적문화계로서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점에서 인류지식의 保護所요、사회성을 대상으로하는점에서 인류문화의 전달자인것이며 새문화창조의 溫床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에 있어서의도서관의 지위는 그대학이 갖는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寄與를 하여야함은 물론이요 이를위한 부단한연구와 노력의 如何는 곧 그도서관의 대학에 있어서의 봉사에 대하여 중대한 평가가 됨은물론이다。

여기에서 제주대학도서관은제주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데 그 존재가치를 인정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문의 세계가 심오하고 광범정치하다 함은 이미 일반론에 속한 이론이지만 실로 한 도서관본연의 기능을 다해야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고장 향토문화재의總本山의 역활을 다해야할 사회적인 의의마저 큰 것임을 忘却해서는 안될것이다。

훌륭한 교수 훌륭한 도서관 훌륭한 학생 그리고 훌륭한시설을 갖인다는것이야말로 대학의 자랑일 것이며 또 여기에 심오한 학문의 권위와 대학의 명예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鄕土文化財의 總本山의 役割

도서관은 새문화창조의 온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문화의 조달과 복지사회의건설에 있다면 도서관의 지위는 그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架橋役을 担當할 重要한 시설의 하나이다。따라서 도서관은 지적문화계로서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점에서 인류지식의 保護所요、사회성을 대상으로하는점에서 인류문화의 전달자인것이며 새문화창조의 溫床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에 있어서의도서관의 지위는 그대학이 갖는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寄與를 하여야함은 물론이요 이를위한 부단한연구와 노력의 如何는 곧 그도서관의 대학에 있어서의 봉사에 대하여 중대한 평가가 됨은물론이다。

여기에서 제주대학도서관은제주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데 그 존재가치를 인정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문의 세계가 심오하고 광범정치하다 함은 이미 일반론에 속한 이론이지만 실로 한 도서관본연의 기능을 다해야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고장 향토문화재의總本山의 역활을 다해야할 사회적인 의의마저 큰 것임을 忘却해서는 안될것이다。

훌륭한 교수 훌륭한 도서관 훌륭한 학생 그리고 훌륭한시설을 갖인다는것이야말로 대학의 자랑일 것이며 또 여기에 심오한 학문의 권위와 대학의 명예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산악부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산악부원을 모집한다

① 대상 : 本大學 在生學 男·女 약간명

②목적 : 하기등산 수련 (지도교수 : 문기선교수)

③ 신청 : 7월 10일까지 (본사사무실로 연락할것)

1969. 6. 3

제주대학총학생회 산악부장 김 용 길

創作과 批評 제4권 제2호

1969 여름

全作長編·달 …… 方 榮 雄

한글 만으로의 길 (下) …… 柳 宗 鎬

星湖 이익 (實學의 古典) …… 鄭 奭 鍾

삶의 어려움과시의어려움 …… 李 盛 夫

市 民 文 學 論 …… 白 樂 청

詩 遺稿 5篇 …… 金 洙 映

詩 된장 外 …… 趙 泰 一

詩 나는 모른다 外 …… 최 민

일 조 각

혼란기 (混亂記)

國·3 김병택

가슴이 여러 차례나 격동의 물결을 내며 나를 괴롭힌다. 이 괴로움, 그녀의 서투른 불어 발음이 나를 우울하게 했을 때의 감정이지금 괴로움과 비슷했다. 아,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숨쉬고 괴로워할 줄아는 생명체일 뿐. 꺼져라, 꺼져라. 아버지는 희색눈알을 굴리며 중얼거리고 그가 깊숙히 몸을 담은 회전의자는 삼십도 쯤 움직인다. 뭘, 뭘 말입니까. 없어져버리길 원하는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허허허. 젊은 놈들의 생각이란 바로 이렇거든. 유독 구개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버지의 발음이 천천히 퍼진다.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길 않아. 무조건존경을 받고 싶지도 않지만말야. 형광등 빛이 갑자기 없어진다. 방은 어두움의 우주로 둘러싸여 있다. 아무도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것이다. 나는 한 구석에 앉아 자위를 하는 것이다. 숨소리가 커진다. 공연히, 공연히라고 할 만한숨소리. 아버지가 크게 트림해댄다. 액체의 발사. 나는 마침내발정한 몸을 전환시킨 것이다. 이렇게도 많은가, 성액이. 정자가 이렇게도 무기력한가. 밖으로 나오더니 말이다. 호흡.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다. 옆 집과는 사정이 달라진 것인가. 전축소리가 들려온다. 옆 집의 고등학교 수학선생은 인테리여서 푸치니의 가극이나 베토벤의 심포니를 청취 대상으로 삼는다. 아버지의 늙은 목소리. 애야. 휴즈라도 살펴보렴. 네어머니도, 어디가서 안 오는지, 위험해. 젊은 계집이 싸돌아다니다 보면 엉망이지. 정조관념이란 것이. 으하하하. 이 어두운 데서 아버지. 조금만. 좀 조금만 웃겨 주시면. 왜 나의 어머니가 돼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몸을 주물러로서, 아버지의 몸을 주물러주는, 그래서 밑에 깔리는, 그런 여자인 것 뿐인데. 귀찮은 피임 도구를 사용할필요가 없게 하는 그런 여자인 것 뿐인데. 이 놈, 이놈 아. 아비 앞에서 하는 말버릇이 겨우 그거냐. 피임 방법이나 알고 다니고. 엉덩이 밑에 깔리는 생리나 배우고. 전기가 온다. 아버지의 비대한 앞 부분이 비단 잠옷에 알맞게 감추어져 있다. 주위는 동화 속의 분위기 같다. 아버지는 옛말을 천천히주머니에서 꺼내고 나는 쭈그리고 앉아 경청하는 손자. 나는 그런 동화들 갖고 있는 백만원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어른이돼버렸으니까. 형은 나보다 서너 살 위였지만 만화 세계를 떠나기 싫어했고 나는로렌스의 무지게나 꽃으며 다니다 그것도 싫증이 나면보라리 부인의 열렬한팬이되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법이다. 생기지도 못한 놈이건방지게 군다, 이해할 사람이 가지고 다녀야 그 책도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등. 니체의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절단하는 것이다. 나의 여린 두뇌도 박살이났고 피부도 좀처럼 아물지않았다.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의 숲속을 헤맨지 수 삼년. 또 삼년 후 나는 대학생의 반을 누구에겐가 바쳤다. 헌신했다. 보람이나 댓가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임이다. 그런 경우 나는 참으로 많이 인내하고 무엇인가와 싸워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없어도 별로 위협을 당하는 생활은 아니였다. 이 위협당하지 않는 생활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다. 늙은 피가 무릇 나의 동화 세계를 침범당하나의 동화 세계를 침범당한 것이다. 그녀는 이 무렵에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주었다. 키스까지 제공한 그녀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 다음으로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뻔한 여자가 생기면. 천만에 다른 여자가 생기면. 버릴테지. 죽어도. 죽어도 버리지 않은 여자가 필요한 것이다. 늙은 피가 무릇 나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새 어머니와 깍깍거리던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해서 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없을까. 없을까. 없을까. 없을까의 무리(群)로 해서 없을까의 무리(群)로 해서 체험해야 한다(계속)

비상

국·3 김병택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이다. 때문에 그것은 목적가치와 수단가치를 다 함께 가진 행위이다. 그 행위의 방향을 나는 뚜렷하게 알고있지 못하다. 어떻게해야 위대한 작품이고 어떻게 해야 문세성을 제시하게 된다는 식의 공식을 희미하게 깨닫고 있을 뿐이다. 나는 「있을뿐」의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줄달음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소설이 어떤 형태의 기법을취했다든가, 어떤 형태의 안목이 부족했는가를 비판받고 또 그것을 토대로 고쳐나가고 싶다. 국제성을 띠며 비상하기 위하여.

당선소감

지 않다. 처음부터 어른이돼 서 서 도 시 간 이 무 렵 에 나 타 나 서 나 를 위 로 해 주 었 다 . 키 스 까 지 제 공 한 그 녀 를 나 는 이 세 상 에 서 어 머 니 다 음 으 로 소 중 히 생 각 하 고 있 다 . 뻔 한 일 , 버 릴 테 지 . 죽 어 도 . 죽 어 도 버 리 지 않 은 여 자 가 필 요 한 것 이 다 . 늙 은 피 가 무 릇 나 의 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새 어 머 니 와 깍 깍 거 리 던 아 버 지 . 나 는 이 렇 게 해 서 또 하 나 의 동 화 세 계 를 침 범 당 한 것 이 다 . 그 녀 는